

우리나라

# 아동·청소년 인권!

잘 **보장** 받고 있을까요?



오늘을 살아가는 시민이자  
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를 지닌 아동·청소년

## 인권의 주체로서 정당한 삶을 누리고 있을까요?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 
초4~고3 아동·청소년 8,718명을 대상으로  
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.

## 주요 조사문항

-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
| 시민적 권리와 자유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
| 폭력 및 학대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
|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
| 장애인초 보건 및 복지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
| 교육·여가 및 문화적 활동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
| 특별보호조치        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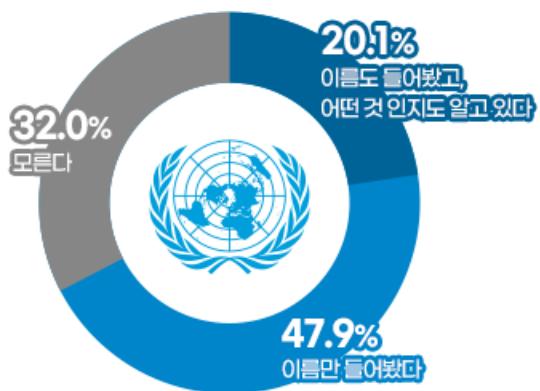
※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'[아동·청소년인권지표체계](#)'에 따라 조사문항 구성

※ '[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조사](#)'는 국가승인통계(제402001)로  
본원 홈페이지와 통계청(KOSIS, MDIS)에 조사결과와 원자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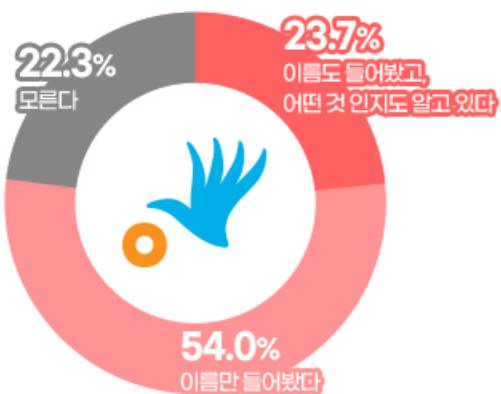
아동·청소년에게 질문했습니다.

## 인권 관련 협약에 알고 있어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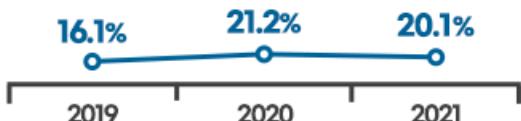
### 유엔아동권리협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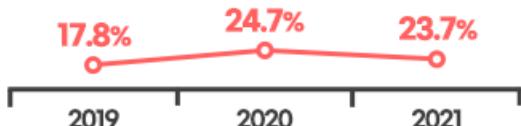
### 국가인권위원회



이름도 들어봤고,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



이름도 들어봤고, 어떤 것 인지도 알고 있다



유엔아동권리협약,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는  
모두 20% 초반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.

아동·청소년에게 질문했습니다.

# 참여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하나요?

아동·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긍정적 인식



## 그렇다면 참여권 보장을 방해하는 요인은?

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 
사회의 편견 **30.7%**

시간 부족 **29.2%**

참여 정보 부족  
**24.2%**



청소년의 72.6%가 '참여권을 보장받고 있다'고 답했으며,  
참여권 보장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는  
'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'을 꼽았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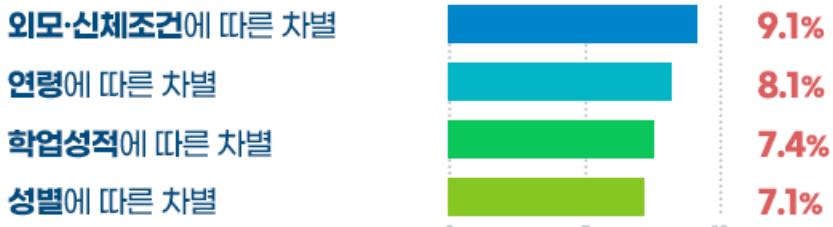
아동·청소년에게 질문했습니다.

## 지난 1년 간 한 번이라도 차별 받았던 경험이 있나요?

### 지난 1년 간 한 번이라도 차별 받은 경험은?



### (내가) 다른 사람을 차별했던 경험은?



청소년 5명 중 1명은 지난 1년 동안 **나이, 학업성적, 성별, 외모·신체조건** 등에 따른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.

아동·청소년에게 질문했습니다.

##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?

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 
(52.4%)



이유가 무엇인가요?

학업문제 (47.4%)

인터넷(영상, 블로그 등) (13.7%)  
게임 (10.9%)

죽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  
(29.9%)



이유가 무엇인가요?

학업문제 (45.8%)

미래(진로)에 대한 불안 (20.3%)  
가족간 갈등 (15.9%)

청소년들은 신체적·정신적 건강(수면부족, 자살 생각 등)을 악화시키는

주요 요인으로 학업문제, 진로에 대한 불안감 등을 꼽았습니다.

아동·청소년에게 질문했습니다.

##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?

“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한 적이 있다” (25.3%)

###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는?



1순위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(31.0%)

2순위 공부가 하기 싫어서 (27.6%)

3순위 성적이 좋지 않아서 (16.1%)

4순위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 (10.3%)

청소년 4명 중 1명은 학업중단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.

학교급이 높거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, 경제적 여건이 어려울수록

학업중단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아동·청소년에게 질문했습니다.

## 언어폭력 및 체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?



### 언어폭력



### 신체적 벌



청소년들은 1년에 1회 이상 부모와 교사로부터  
체벌 받은 경험이 각각 24.0%, 3.1% 있었다고 응답했습니다.

## 조사결과

아동·청소년은 **학업부담으로 심리적·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,**  
**인권과 참여의 주체로서 정당한 권리를 충분히**  
**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**



정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 
130여개 아동·청소년 인권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지며,  
이행결과를 담은 제7차 협약이행 국가보고서를 2024년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.

**체계적인 아동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 
아동·청소년의 인권 증진을 위한  
적극적인 노력을 가속화할 때입니다.**

\*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20일 아동·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약속인 ‘유엔아동권리협약’을 비준함



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
**2021 아동·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
한국 아동·청소년 인권실태**

김영지 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선임연구위원)

유설희 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전문연구위원)

최홍일 (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, 전문연구위원)